

한·일 경제관계의 특징과 협력방향

정 성춘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장 (jung@kiep.go.kr, Tel; 3460-1202)

주요 내용

- ▣ 최근 한일관계는 정치·외교적인 차원에서는 점점 더 소원해지고 있음. 금년 6월 20일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정상간의 역사인식에 대한 격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음. 그러나 양국간 경제관계는 정치·외교관계와는 달리 최근 상호의존도와 긴밀도를 더해 가고 있음. 본고에서는 한·일 경제관계의 상호의존도 증대를 무역, 투자, 산업·기술협력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향후 한·일간 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무역분야에서는 만성적인 대일 적자구조가 고착되어 있으면서도 양국은 세계시장 및 양국 국내시장에서 경쟁관계를 확대·심화시켜왔고 또한 양국간 산업내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의존관계를 심화시켜왔음.
 - 투자분야에서는 교역수준에 비해 낮은 투자수준을 보이고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더 높은 비중을 보이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음. 이는 일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환경 조성이 시급한 과제임을 의미함.
 - 기술 및 산업협력분야에서는 일본이 미국에 이은 제2의 기술도입국이며 최근에는 우리의 기술수준 증가로 수평적 기술제휴가 나타나고 있음. 산업협력에서는 대기업간 협력이 매우 활발한 반면 중소기업간 협력은 부족하다는 특징이 나타남.
- ▣ 양국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양국간 경쟁압력을 우리나라 산업의 질적 고도화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또한 한·일 양국간의 긴밀한 부품·소재 상호의존관계를 활용하여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

1. 한·일 경제관계의 구조적 특징

가. 무역관계

1) 경쟁구조의 확대·심화

- 한·일 양국의 경쟁구조는 세계시장 및 국내시장에서 확대·심화되어왔음.
 - 세계시장에서 한·일 양국의 경쟁관계를 나타내는 수출경합지수(0에 가까우면 경합도가 낮고 1에 가까우면 경합도가 높음을 의미)는 한·중 및 중·일간 지수보다 높은 수준이며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증가해왔음. 이는 양국이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품목구조가 유사함을 의미하며 세계시장에서의 양국의 경쟁관계가 확대·심화되어왔음을 의미함.
 - 경쟁관계가 특히 심한 품목은 반도체, IT기기, 가전기기, 자동차임. 다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반기계, 반도체, 가전기기, 선박 등 품목에서 수출경합지수가 불변 혹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이 분야들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증가한 결과임.

표 1. 세계시장에서의 한·일간 수출경합지수 추이

	1992	1995	2000
제 조 업	0.43	0.50	0.53
음 식 료	0.53	0.52	0.58
섬유의복	0.49	0.59	0.58
화 학	0.54	0.55	0.56
일반기계	0.62	0.62	0.62
반 도 체	0.82	0.82	0.77
전자부분품	0.55	0.44	0.57
IT기기	0.67	0.63	0.69
가전기기	0.75	0.73	0.71
자 동 차	0.71	0.73	0.88
선 박	0.61	0.68	0.59
정밀기계	0.62	0.63	0.64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동아시아 분업구조분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2003년 p. 175.

- 한편 한·일 양국시장에서의 경쟁도 격심해지고 있음. 한국의 경우, 1999년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폐지한 이후, 특히 소비재를 중심으로 대일 수입이 크게 증가한 바 있음.

- 예를 들면 전기밥솥, VCR, 자동차, 휴대전화, 컬러TV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대형고급승용차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수입증가와 더불어 국내시장에서의 한·일간 경쟁은 향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의 양국간 경쟁격화는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일본기업과의 경쟁과정 속에서 한국기업은 제품개발, 원가절감, 제품차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제고해왔음.
- 그 결과, 일부 가전기기, 선박,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는 현재 일본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IT가전(PDP, 액정TV, 휴대전화, 액정모니터) 등 첨단분야에서도 일본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기에 이르렀음.

2) 만성적인 적자구조 고착

-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뒤에는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구조가 고착되어 있음.
- 1960년~2004년 대일누적적자규모는 총 2,400억 달러 수준임.
- 2004년 중, 대세계 무역수지는 294억 달러 흑자(전년대비 97.3% 증가)인 반면, 대일 무역수지는 244억 달러 적자(전년대비 28.4% 증가)였음.

표 2. 대세계 무역수지 및 대일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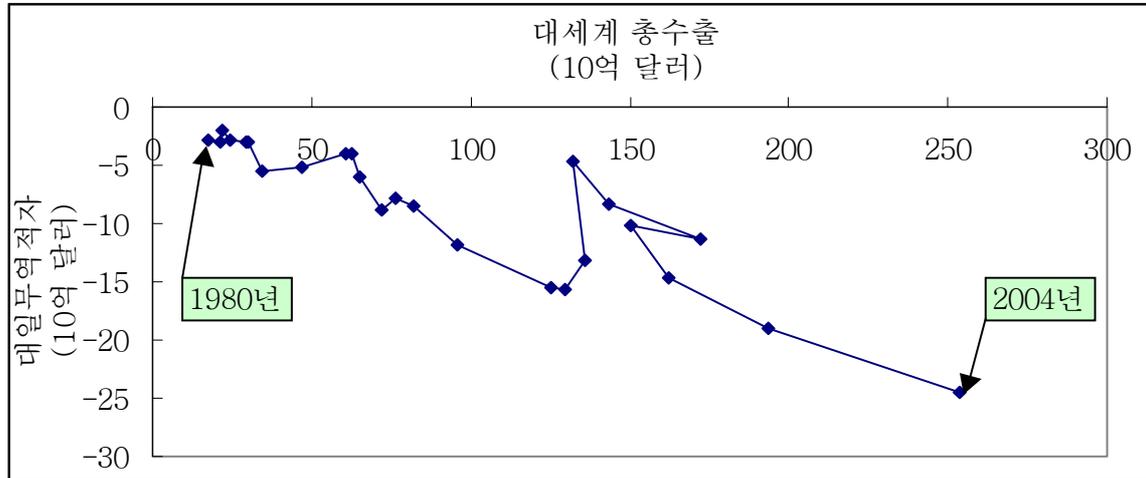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대세계 무역수지	390	239	118	93	103	149	294
대일 무역수지	-46	-83	-113	-101	-147	-190	-244

자료: KOTIS

- 한국의 대세계 수출 증대가 대일 적자를 유발시키는 구조가 고착됨.
- 한국의 수출증가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증가를 초래하여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는 구조임.

그림 1. 우리나라 대세계 총수출과 대일 무역적자



자료: KOTIS

3) 부품·소재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여전

- 우리나라의 부품·소재 조달은 일본, 미국 및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특히 대일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10대 주요 부품·소재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입 중 일본, 미국, 중국 3개국이 차지하는 비중 (2003년)은 약 70.1%로 이 3개국에의 의존도가 압도적임.

- 대일본 수입비중은 1998년 33.5%에서 2003년 34.8%로 증가하여 대일 의존구조는 아직도 여전함.

- 최근에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감소하는 등 수입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1998년 8.2%에서 2003년 14.5%로 증가하였으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이 기간 36.1%에서 20.8%로 감소하였음.

- 특히 핵심 부품·소재의 경우에는 대일 의존도가 심화되어 왔음.

표 3. 10대 부품·소재 수입국으로부터의 부품·소재 수입추이

주요 국가	수입규모(억 달러)		수입비중(%)	
	1998	2003	1998	2003
일 본	111	216	33.5	34.8
미 국	120	129	36.1	20.8
중 국	27	90	8.2	14.5
대 만	13	42	3.9	6.7
독 일	19	37	5.9	6.0
싱가포르	12	31	3.6	5.0
홍 콩	3	24	1.0	3.9
말레이시아	9	21	2.6	3.4
영 국	11	15	3.5	2.4
필리핀	6	14	1.8	2.3

자료: 산업자원부, 『부품소재산업 무역통계연보 2004』 .

- 핵심 부품·소재가 수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선진 4대국(미, 일, 독, 영)으로부터의 총수입 중 대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42.4%에서 2003년 54.3%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 반면 대미 수입비중(선진 4대국 기준)은 이 기간에 45.8%에서 32.5%로 크게 감소하였음.
- 독일 및 영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2003년)은 약 13.1%로 미미한 수준이나 독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7.4%에서 9.4%로 증가하였음.
- 부품·소재의 대일 의존구조는 한국경제가 가공조립형 수출주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현상임.

표 4. 주요 선진 4대국으로부터의 부품·소재 수입추이

주요 국가	수입규모(억 달러)		수입비중(%)	
	1998	2003	1998	2003
일 본	111	216	42.4	54.3
미 국	120	129	45.8	32.5
독 일	19	37	7.4	9.4
영 국	11	15	4.4	3.7

자료: 산업자원부, 『부품·소재산업 무역통계연보 2004』 .

- 부품·소재의 대일 수입은 한국의 신속한 산업화와 한국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음.
- 경제위기 이전에는 한국경제가 경상수지 적자상태여서 부품·소재의 일방적 대일 의존은 대외불균형의 심화요인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크게 부각되어왔음.
-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현재, 부품·소재의 대일 의존에 따르는 불안요인은 감소하였고 오히려 국제경쟁력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평가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주목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가가치의 원천이 부품·소재로 이동하고 있어 대일 의존 구조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한국경제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음.

4) 산업내 무역을 통한 상호의존관계 증대

- 한·일 양국간 산업내 무역활성화로 양국간 상호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동종 산업내에서 품질이 비슷한 제품간의 수평적 산업내 무역, 혹은 품질에 차이가 나는 제품간의 수직적 산업내 무역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특히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 등 부품·소재산업분야에서 산업내 무역이 활발함.

표 5. 주요 산업에서의 한·일 양국간 산업내 무역(2000년)

(단위: %)

산 업 명	산업간 무역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소계	수평적	수직적	기타 ¹⁾
화학물, 화학제품	56.6	43.4	11.2	32.1	0.1
플라스틱, 고무	37.0	63.0	3.6	59.4	0.0
펄프, 인쇄물	55.9	44.1	6.8	37.3	0.0
1차 금속비금속 제품	41.2	58.8	29.1	29.7	0.0
기계·전기 제품	39.9	60.1	14.0	45.9	0.2
가구, 완구, 예술품	52.3	47.7	1.7	42.7	3.4
전 산 업	50.1	49.9	13.8	35.8	0.4

자료: KIEP 시산(H.S. 6단위)

- 이러한 산업내 무역은 2000년 49.9%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간 무역과 거의 대등한 정도에 이르고 있음.
-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 한국의 대일 의존도 증가와 더불어 미약하지만 일본의 대한 의존도도 증가하고 있어 한·일간에는 긴밀한 의존관계가 형성되고 있음.

나. 투자관계

1) 교역수준에 비해 낮은 투자수준

- 일본의 대한투자는 1962년~2004년 누계기준 155억 달러로 교역규모가 비슷한 미국(297억 달러), EU(223억 달러)에 비해 저조한 상태임.
- 교역규모(2004년) 대비 누계투자액 비율을 보면, 일본은 22.9%로, 미국 41.5%, EU 36.0%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6. 미국, EU, 일본의 대한 투자규모 비교

(단위: 억달러)

미 국		E U		일 본	
교역규모	투자규모	교역규모	투자규모	교역규모	투자규모
716	297(41.5%)	620	223(36.0%)	678	155(22.9%)

주: 1. 교역규모는 2004년 기준, 투자규모는 누계기준임.

2. () 안은 교역규모 대비 누적투자규모 비율임.

자료: 산업자원부

- 일본의 직접투자는 북미와 유럽에서는 시장지향형 투자, 아시아지역에서는 비용절감형 투자가 기본적 특징임. 따라서 거대시장이 있거나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의 대세계 직접투자(2003년, 약 4조 엔) 중 북미는 29.6%, 유럽은 35%로 전체의 65%가 미국 및 유럽에 집중되어 있음(시장지향형).
- 비용절감을 위한 일본의 대아시아지역 투자는 중국(8.7%), 인도네시아(1.8%), 태국(1.7%), 말레이시아(1.3%) 순이며 대한 투자는 전체 투자의 0.8%에 불과함.

- 일본의 저조한 대한 투자는 (1) 시장규모가 작고, (2) 비용절감효과가 아시아 개도국에 비해 약하며, (3) 지리적 근접성으로 투자보다는 무역을 선호하기 때문임. 일본의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여건 개선노력이 더욱 필요함.

2)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높은 투자비중

- 일본의 대한 투자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더 높은 투자비중을 보이고 있음.
- 일본의 제조업 투자비중(1962~2004년 누계기준)은 47.4%로 미국의 31.8%보다 높으나 EU(54.7%) 및 EU 주요 개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임.
-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대한 투자가 서비스업에 집중된 결과임.

표 7. 주요국의 업종별 대한 투자 비중 비교(1962~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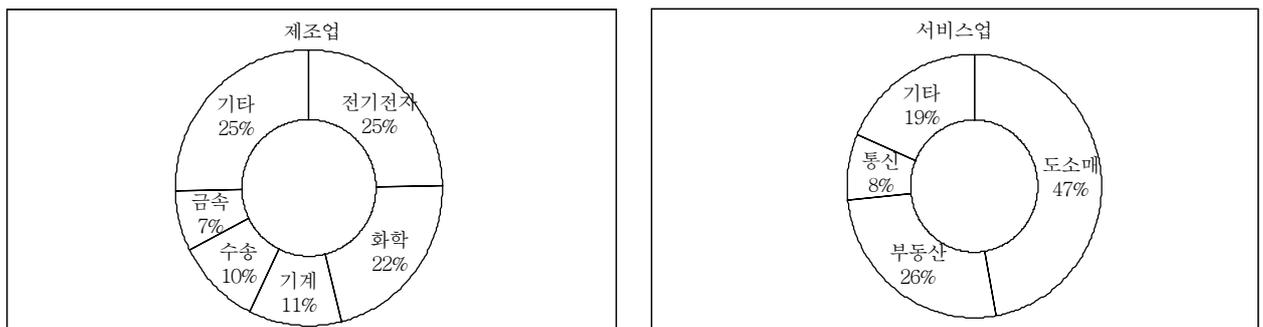
(단위: %)

	일본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제조업	47.4	31.8	54.7	54.0	50.5	55.1	56.0
서비스업	50.3	57.8	43.2	43.9	49.2	41.0	41.9

자료: 산업자원부

- 일본의 제조업 투자를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24.7%), 화학공업(21.5%), 기계류(10.9%), 수송기기(10.3%), 금속(7.2%) 순서임.
- 일본의 서비스업 투자비중은 도소매업(47.3%)에 집중되어 있으며, 부동산(25.9%), 통신업(8.3%) 순으로 높음.

그림 2. 일본의 업종별 투자비중



다. 기술 및 산업협력관계

1) 일본은 미국에 이은 제2의 기술 도입국

- 주요국별 기술도입상황을 보면 일본은 미국에 이은 제2의 기술도입국임.
- 우리나라의 대일 기술도입 대가지급액(2002년)은 4억 달러로 미국의 18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독일, 프랑스에 비해 높은 수준임.

표 8. 주요국별 기술도입 대가지급 현황

(단위: 억달러)

	합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기타
1997	24	15	5	1	0.7	3
2002	30	18	4	1	0.8	5

자료: 『과학기술연감 2004』

-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기술을 이전받아왔으나 최근에는 우리 대기업의 기술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기업과의 수평적 기술제휴가 늘어나고 있음(예: 삼성과 소니의 포괄적 기술제휴(2004년 12월)).
- 대일 기술도입은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자동차, 철강 등 우리의 주력산업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차원에서는 「한·일과학기술협력협정」에 의거하여 공적 연구기관간의 인적교류, 공동연구 등이 추진되어왔음.
- 기업차원에서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간의 기술협력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 과학자 인적 교류는 양적으로 많으나 질적으로 낮은 수준

- 일본의 과학기술 인적교류 대상국으로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이은 3위 국가임. 양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의 연구자 파견(2000년)은 주로 미국(24.9%), 중국(10.6%)이며 한국(7.7%)은 3위를 차지함. 수용자 면에서도 한국은 10.8%로 중국(21.6%) 및 미국(15.7%)에 이어 3위 국가임.

표 9. 일본의 연구자 파견 및 수용자 수(2002년)

(단위: %)

국(지역)명	파견자 구성비	수용자 구성비
중국	10.6	21.6
미국	24.9	15.7
한국	7.7	10.8
독일	5.7	4.8

자료: 일본 문부과학성 자료 참조

- 그러나 한·일간 연구자 교류는 질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일본의 파견연구자 중 장기파견자는 미국과 유럽이 많은 반면 한국과 중국은 단기파견이 다수를 차지함.

- 일본의 선진국과의 연구교류는 첨단과학을 중심으로 한 공동연구인 반면 한국은 이러한 연구교류에서 배제되고 있음.

- 일본학술진흥회는 일·미 첨단과학 심포지엄, 일·유럽 첨단과학세미나를 가동하고 있음.
- “중점연구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핵심기술에 관해 선진제국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3) 대기업간 협력은 활발, 중소기업간 협력은 미진

- 대기업간 협력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전기·전자, 철강, 기계 등 분야의 대기업간에는 기술제휴, 합작회사 설립, 부품의 상호조달 등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삼성과 소니의 합작사 설립: 제7세대 TFT LCD를 생산하기 위해 양사의 합작사인 S-LCD사가 2004년 출범하였음.
- 포스코와 신일본제철: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기술개발, 원재료 공동조달, 제3국에서의 협력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스미토모 화학 한국 진출: S-LCD 및 LG-필립스 LCD에 LCD용 편광필름, 컬러필터 등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간 산업협력은 부진함.
- 양국간 중소기업 협력은 “한·일(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나 상대국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협력이 원활하지 못함.
 - 산업자원부 등이 주체가 되어 2005년 3월에 실시한 일본중소기업 한국 방문단의 110여 개사 중 약 60%가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것임. 방문단의 목적은 한국의 협력파트너 탐색 및 협력 가능사업의 협의 등 정보수집과 인적교류임.
 - 현재 가동 중인 “한·일(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의 기능은 인력교류에 집중되어 있어 기능의 확대가 필요함.

2. 협력방향

가. 경쟁압력의 활용

- 세계 최고수준인 일본제조업과 국내시장에서 경쟁함으로써 국내제조업의 질적인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음. 즉 한·일간 경쟁압력을 국내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활력소로 활용해야 할 것임.
- 전기·전자, 자동차 등에서 국내시장의 독과점적인 구조를 허파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임. 또한 우리 기업의 기술 및 경영혁신노력을 유도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임.
- 한·일간 경쟁압력의 증가가 국내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으나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은 일본기업에 대한 대응능력을 상당히 강화시켜왔음.
- 제조업 전체의 세계시장점유율(1992→2000년)은 일본이 11.6%에서 10.1%로 하락하였으나 한국은 2.6%에서 3.7%로 증가하였음.
- 경쟁압력의 증가는 양국간 기술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있음. 즉 격심한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국경을 넘은 기업간의 합종연횡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한·일 기업간의 포괄적 기술제휴가 증가할 수도 있음. 우리 기업은 이를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임.

-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양국간 교류는 실제로 증가되고 있음. 일본은 한국의 제2의 기술도입국이며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기술의 상호이용도 증대하고 있어 한·일간 기술의 상호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임.
- 한국의 대기업은 일본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성장을 달성하였고 현재도 기업간 포괄적 기술제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이와 같은 민간차원에서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면서 양국간 기술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은 한국경제의 질적 고도화에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차세대 성장동력분야에서도 한·일 양국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분야에서 양국간 협력과 경쟁관계는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이는 무역, 기술, 차세대 성장산업 등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분야에서 일본이 한국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는 것을 의미하며 적절한 한일경제관계의 정립이 필요함을 의미함. 한·일 협력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일 FTA 등 양국 시장통합과 경쟁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중요함.

나. 한·일협력을 통한 부품·소재산업 육성

1) 대일 의존적구조의 위험성

- 대일 의존적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완성품 제조업의 급속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 부품·소재의 대일 수입의존은 부품·소재개발비용 절감, 품질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완성 제조품의 신속한 양산화를 가능하게 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의존구조는 장기적으로는 많은 위험요인을 안고 있음.

- 최근에는 부가가치의 원천이 부품소재로 이동하고 있음(제조업 부가가치구성: 부품·소재 61%, 완성품 39%).
 -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율이 낮은 완성품 제조 중심의 산업구조는 외화기득률 저하를 초래하여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외화기득률(2000년): 한국(63.3%), 미국(89.3%), 일본(88.9%)).
- 부품·소재의 대일의존도 지속은 부품조달체계를 왜곡하여 장기적으로는 국내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완성품 제조 대기업의 국내 부품·소재 구매기피는 국내 부품·소재기업 발전을 저해하여 해외조달이 다시 증대하는 악순환구조를 형성함.
- 중국이 부품·소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경우, 대중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부품·소재 수출에 타격이 우려되며 나아가 중국의 부품·소재 수입급증도 우려됨. 실제로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부품수입이 급증하고 있음(대중국 부품수입비중: 1998년 8.2%→2003년 14.5%)
- 부품·소재의 대일 수입의존은 이 분야에서의 연구개발투자를 저해함.

2) 한·일협력을 통한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 일본의 부품·소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국내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이 매우 필요함.
- 선진국(미, 일, 독, 영)으로부터 조달되는 핵심부품 중 대일 수입비중은 최근 5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부품·소재의 대일 의존도는 오히려 증가추세임(1998년→2003년, 42.4%→54.3%).
- 한국의 대일 5대 수출품목에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판 등 부품·소재가 포함되어 있어 한국의 대일 수출에서도 부품·소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부품·소재의 수출·수입 양면에서 양국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이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고 있음.
-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일본기업과 대등한 기술수준의 획득을 위

한 국내적 노력이 가장 중요함.

- 한국은 1980년대 이후에도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 획기적인 경쟁력 향상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품·소재산업에서 일본, 독일 등 부품·소재 강국과의 국제 협력관계 강화가 필요함.
- 한·일 협력을 통해 일본의 부품·소재 수입 등 단기적 효율성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우리나라의 부품·소재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기적 한·일 분업구조 재편」, 「장기적 기술 축적전략」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고도 핵심부품·소재, 한국은 핵심부품·소재, 중국은 범용부품·소재로 분업구조를 재편성하는 전략이 필요함.